

영입경쟁·통 큰 투자…치솟는 용병 몸값



▲헥터



▲지크

KIA 외인 듀오 헥터·지크 불펜피칭 굿! 기대감 솔솔~

김기태 감독·코치진 직접 피칭 체크 ‘합격점’

KIA의 2016시즌 명운을 쥔 외국인투수 듀오가 선을 보였다. 불펜피칭부터 기대감을 모았다.

KIA는 올 시즌 외국인투수 2명을 모두 바꿨다. 메이저리거로 이름값만 보면 한화와의 괴물 용병 에스밀 로저스(31) 못지않은 헥터 노에시(29)에게 170만달러라는 거액을 썼고,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한국을 상대해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지크 스프루일(27)도 70만달러에 영입했다.

모처럼 기대를 모은 ‘외인 듀오’다. KIA는 이들을 영입하며 기존의 양현종~윤석민~임준혁과 함께 일찌감치 선발진 구성을 마쳤다. 2009년 우승을 이끌었던 아킬리노 로페즈(41)와 릭 그롬슨(39)의 활약을 재현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2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솔트리버필드에서 둘은 나란히 첫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헥터가 48개, 지크가 33개를 던졌고, 다양한 구종을 모두 테스트했다. 김기태 감독과 조계현 수석코치, 이대진 투수코치가 직접 피칭을 체크했다.

가장 늦게 애리조나 캠프에 합류한 헥터는 코칭스태프로부터 혼자 몸을 잘 만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12월까지 도미니카 윈터리그에서 뛰었고, 고향에서도 개인훈련을 착실히 소화했다. 공을 직접 받은 불펜포수가 “전력으로 던지지도 않았는데 구위가 좋아서 그런지 공이 들어오는 게 다르다. 낮은 코스로 묵직하게 오다가 떠오르는 느낌”이라며 엄지를 치켜들 정도였다. 직구 외에 체인지업의 변화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지크 역시 불펜포수와 이대진 코치로부터 슬라이더와 싱커가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호평이 이어졌다. 이 코치는 “2명 모두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은 것 같다. 비시즌을 잘 보낸 것 같다. 부상만 없으면 제 몫을 해줄 것이다. 헥터는 페이스가 빨라서 오키나와 연습경기 때 등판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헥터와 지크가 2009년 로페즈와 그롬슨이 만든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단추는 잘 켜진 듯하다.

이경노 기자 nirvana@donga.com

kt, 23~24일 ‘팬과의 대화’

kt가 23~24일 수원 kt위즈파크로 팬들을 초청해 의견을 나누고, 더욱 높은 수준의 팬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팬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00명의 팬이 참가했고, kt 김진훈 단장은 “팬들이 주신 의견 중 어린이회원 선물 선택제 등은 호응이 클 것으로 판단해 이번 시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미야구기자협회 시상식 폭설로 취소

미국 동부를 강타한 기록적 폭설 탓에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시상식이 취소됐다. 2015시즌 내셔널리그에선 브라이스 하퍼(MVP·워싱턴), 제이크 아리에타(사이영상), 크리스 브라이언트(신인왕), 조 매든 감독(올해의 감독·이상 시카고 컵스) 등이 수상자로 뽑혔다. 아메리칸리그에선 조시 도널드슨(MVP·토론토), 맬리스 카이클(사이영상), 카를로스 코레아(신인왕·이상 휴스턴), 제프 배니스터 감독(올해의 감독·텍사스)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베이스볼 브레이크

한화 로저스·로사리오 2명에 320만달러 일본 구단과 경쟁 붙은 선수는 몸값 폭등 넥센·SK ‘저비용 고효율’ 전략과 대조적

KBO는 2014년 1월부터 외국인선수의 몸값 상한선(30만달러)을 폐지했다. ‘총액 30만달러에 계약했다’는 천편일률적인 공식 발표가 사라졌다. 이는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연봉 총액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현재(24일 기준) 계약을 마친 외국인선수 28명의 연봉 총액은 2464만달러(약 2955억원). 2015시즌 31명의 총액 2068만달러를 벌써 넘어섰다.

올해 KBO리그 외국인선수 최고 몸값의 주인공은 현재 에스밀 로저스(한화·190만달러·사진)다. 2위는 헥터 노에시(KIA·170만달러), 3위는 에릭 테임즈(NC·150만달러)다. 로저스, 노에시, 테임즈를 비롯해 월린 로사리오(한화·130만달러), 더스틴 니퍼트(두산), 조쉬 린드블럼(롯데·이상 120만달러)까지 6명이 100만달러 이상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니퍼트가 150만달러, 테임즈와 찰리 슈워츠(NC), 잭 한나한(LG)이 각각 100만달러씩을 받았다.

여기서 올해 한화의 ‘통 큰’ 행보가 주목을



끈다. 올해 로저스, 로사리오 2명에게만 320만달러를 썼다. 외국인선수 구성을 마치면 400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2명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이미 용병 1인당 평균 연봉 100만달러를 넘겼다. KIA(330만달러)를 제외하면 외국인 3명을 계약한 팀보다 2명의 몸값 합계가 더 많다.

이름값 높은 일부 선수들은 일본 구단과 경쟁이 붙어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한다. 축소 발표도 비밀비재하다. 에이전트와 구단의 발표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한화가 로저스를 영입했을 때 구단 발표액은 70만달러였지만, 에이전트 측은 100만달러라고 밝혔다.

용병 연봉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빈부격차’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넥센과 SK(190만달러)는 3명을 영입하는 데 200만달러도 안 썼다. 특히 넥센은 대니 돈(75만달러), 라이언 피어밴드(58만달러), 로버트 코엘로(55만달러)에게 총 188만달러를 썼는데, 이는 로저스 한 명의 몸값에도 못 미친다. ‘저비용 고효율’ 전략이다. 두산과 계약이 임박한 닉 에반스는 2014년 일본(다쿠렌)에서 3500만엔(약 3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고려하면 100만달러 이상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물론 적극적 투자가 성적과 직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거들이 처참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2014년 루크 스캇(SK), 지난해 나이저 모건(한화), 필립 험버(KIA) 등은 성적 부진으로 쫓겨났다. 빅리그 경력이 KBO리그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구단의 수익구조는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고 있다”며 “외인 몸값 상한선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몸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한화가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욕할 것도 없다.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승을 위해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지만 그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국내선수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 있다.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NC 테임즈와 KIA 브렛 필에게 배워라

한국 언어와 문화 익히며 소속팀에 융화
실력+성실함 갖춘 외국인선수 모범사례

KBO리그 외국인선수 몸값이 200만달러(약 24억원)에 육박했다. 한화 에스밀 로저스는 190만달러(약 22억8000만원)에 전류했고, KIA 헥터 노에시는 170만달러(약 20억4000만원)에 사인했다. 그러나 높은 금액만큼 중요한 것은 몸값에 어울리는 활약이다. 지난해 외국인선수 최고 연봉(100만달러·약 12억원)을 받은 LG 잭 한나한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32경기 만에 퇴출됐다. 몸값이 얼마

든 KBO리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불명예스럽게 퇴장해야 한다.

모범사례는 있다. NC 에릭 테임즈는 2015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최우수선수(MVP)로 등극했다. 그가 호성적을 낼 수 있었던 데는 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숨은 노력이 있었다. 테임즈가 NC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의미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한글을 읽을 수는 있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 덕분에 빠르게 팀원으로 녹아들었고, 특유의 성실함으로 젊은 선수들의 모범이 됐다.

KIA에서 3년째 뛰고 있는 브렛 필도 KBO



테임즈

필

리그에 정착룩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2014년부터 2년 연속 타율 3할(0.309·0.325)에 두 자릿수 홈런(19개·22개)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0타점

(101타점)을 넘기며 중심타자로 활약했다. 필 역시 한국에 오자마자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선 한국어 인사를 준비할 정도로 선수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고 있다. 이번 아니다. 대개 아내가 임신하면 출산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느 외국인선수들과 달리 필은 한국에서 첫째 자녀를 낳았다. 심지어 둘째도 광주에서 낳을 예정.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

이처럼 필과 테임즈는 뛰어난 실력뿐 아니라 팀에 대한 남다른 애정, 한국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리그를 대표하는 외국인 선수로 우뚝 섰다. KBO리그에 첫 발을 내딛는 새 외국인선수들에게는 이들의 행보가 교본이 될 수 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KIA의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찾아 투수들을 위한 1일도움로 나섰다. KIA의 젊은 투수들이 박찬호의 경험담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 | KIA 타이거즈

코리안특급 특별 과외…박찬호, KIA 애리조나 캠프서 강연

■런 다운

애리조나에 ‘코리안 특급’이 됐다. KIA의 젊은 투수들이 레전드 박찬호(43)와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찬호는 23일(한국시간)과 24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차례진 KIA의 스프링캠프에 머물렀다. LA에서 체류 중인 박찬호에게 KIA 김기태 감독이 직접 연락해 후

배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청했고, 박찬호도 자동차로 6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왔다.

KIA의 애리조나 캠프에는 젊은 투수들이 대거 참가했다. 경험이 있는 투수들은 광주에서 몸을 만들고, 본진에 앞서 2월초 일본 오키나와로 향한다. 애리조나 투수조는 대부분 아직 혼자 몸을 만들기엔 부족한 젊은 선수들로 채워져 있다.

메이저리그 동양인 최다승(124승)에 빛

나는 박찬호의 경험을 듣는 것만 해도 어린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간접체험이다. 박찬호는 첫 날에는 선수단에게 강연을 했다.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 이후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해줬다.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질의응답까지 총 2시간30분을 할애했다.

박찬호는 24일에는 직접 몇몇 선수들의

불펜피칭을 봐줬다. 특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젊은 투수들의 결에서 ‘특별과외’를 해주기도 했다. 대선배와 뜻 깊은 시간을 보낸 선수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꿈을 키웠다.

코리안 특급의 스프링캠프 방문은 몇 해 전부터 이어져왔다. 공주고 동문인 김경문 NC 감독과의 인연으로 전지훈련지를 찾아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박찬호는 KIA 외에도, 투산으로 이동해 NC와 kt의 캠프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경노 기자 nirvana@donga.com